

2019년 희곡우체통 낭독회 8차 초대작 선정평

<사랑의 변주곡>

2019년 희곡우체통 시즌 심사와 낭독회가 마지막 회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이 낭독회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빠듯한 연습 일정에도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애써준 배우님들, 그리고 이 우체통 사업의 주인공인 참여 작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을 마감하며 희곡우체통은 이제 그 동안의 작업을 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해,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심사는 시즌 내에 들어온 후보작 및 그 동안의 유보작들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고 마지막 낭독회 후보작으로 <사랑의 변주곡>을 선택하였습니다.

강력한 극성이 보이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아한 언어, 세상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과거를 반추하고 여전히 혼란스런 현실을 들여다보는 작가의 시선은 잔잔하면서도 신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젊은이의 과격한 목소리가 아닌 이 반성적인 작품은, 연말을 맞은 우리들에게 묵직한 성찰의 시간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희곡우체통의 마지막 낭독회, 그 동안 보석처럼 묻혀있던 작가와 작품들을 만났고 그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형식의 가능성을 관객들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들이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낭독회도 관객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였듯 이 마지막 낭독회도 관객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시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시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